

인터넷 윤리 확보를 위한 정화 활동의 성과와 향후 방향

특집
03

목 차

1. 서 론
2. 인터넷 윤리와 자율 규제
3. 각급 기관의 인터넷 정화 활동 현황
4. 인터넷 윤리 정화 활동의 성과와 향후 방향

이 은 경
(정보통신윤리위원회)

1. 서 론

“모든 미디어는 인간이 지닌 재능의 심리적 또는 물리적 확장”¹⁾이라는 마샬 맥루한의 견해처럼 인터넷은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다. 인터넷의 등장은 텍스트, 음성, 음향, 영상 등 형식이 서로 다른 하나로 통합하여 구현하였고, 인터넷의 비선형적인 구조는 물리적 시공간을 넘어 가상 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현실 공간보다는 훨씬 다양하고 복잡한 인간관계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미디어 수용자에게도 변화가 일어났다. 텔레비전이나 신문시대의 수용자들은 주어진 정보를 받아서 즐기는 것에 그쳤다면 인터넷 시대의 수용자는 텍스트에 개입하여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텍스트 자체를 변형시킨다. 나아가 수용자는 수용 과정에 참여하여 정보를 생산해내기도 하는 정보 소비자이자 정보 생산자, 정보 제공자인 프로슈머로 존재하게 되었다(성동규, 2002, 정현선 2004).

인터넷 미디어가 방송이나 신문과 같이 하나의 언론 미디어로서 또는 역 의제 설정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사회적 영향성을 가지게 되었으나 모든 이용자들이 소비자이자 생산자가 됨으로써 인터넷의 상호 작용성, 익명성과 결합한 문제를 양산해내고 있다. 커뮤니케이션이나 정보원의 익명성으로 인한 여론 조작, 흑색 선전 등에 악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이용자들의 사생활 침해, 사이버 명예훼손 등 사이버 폭력, 음란 등 유해정보 유통의 문제점, 인터넷이나 게임에 지나치게 몰입하여 보이는 중독, 불법 정보의 유통과 모의로 인한 사이버 범죄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박성호, 2003).

인터넷 상의 다양한 역기능은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속성과 함께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도덕관, 그리고 사회가 인터넷 문화를 바라보는 태도에 의해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다. 이

1) Marshall McLuhan & Q. Fore, The Medium Is the Message, Random House, 1976, 김진홍 옮김, 『미디어는 맛사지다』, 열화당, 1995, p.41.

에 따라 인터넷 정책 입안자나 사업자, 그리고 이 용자에 이르기까지 정보사회에 맞는 윤리의 모색, 다양한 법제도의 마련, 사회의 자율적인 시스템 등이 등장하여 실천되어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예인 X파일, 신생아 학대사건, 개똥녀 사건, 중국인 잔혹사건·유포, 부산 K중학교 학생구타 사망사건 등 사이버 명예 훼손과 사이버 폭력, 난자 매매, 마약 매매 등 불법거래 정보 및 음란정보 유통까지 2005년의 인터넷은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양산해냈다. 크고 작은 사건이 많았던 만큼 2005년 인터넷을 건강하고 유익한 공간으로 만들어보자는 논의 또한 활발한 한해였다.

사이버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법제화 노력, 인터넷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보호책임자제도의 시행을 비롯하여, 사이버명예시민운동 등 다양한 정화 노력이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2005년 진행된 인터넷 정화 노력을 정리해봄으로써 향후 인터넷 윤리 정화 활동의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인터넷 윤리와 자율 규제

윌리엄 깁슨은 이미 15년 전 인터넷은 공간이나 지위, 법률이 부적절한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주장은 시간이나 돈, 재능을 더 많이 낭비하기 전에 청소년들에게 인터넷이 만들어내는 사이버 공간이라는 새로운 현실을 인식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었다²⁾. 이는 인터넷이 지금까지 우리가 접해온 신문이나 방송 매체와는 다른 특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은 쌍방향성, 익명성, 무국경성 등의 특징으로 인해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다양한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다. 자유로운 의견 개진, 다양한 정체성의 실험, 거리와 시간의 초월하여 일어나는 만남, 정보 공유 등 긍정적인 측면도 많지만 익명성을 악용한 사이버 폭력과 유해정보의 유통, 사이버 범죄 행위 등 부정적인 사례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³⁾.

이에 따라 인터넷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다양한 규제 방식이 등장하여 적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규제방식으로는 공적 규제와 민간 자율 규제에 나눌 수 있다.

공적 규제는 법률에 의한 규제나 제도 등에 의한 행정적 규제 등이 있으며, 민간 자율 규제는 규제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에게 그 소속의 활동에 대해 스스로 규제 기준을 설정하고, 그 집행까지도 위임받는 경우라 할 수 있다⁴⁾. 즉, 민간영역에서 규제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스스로 규제를 하는 경우를 민간 자율 규제라고 할 수 있다. 민간자율 규제의 주체는 사업자, 시민단체, 이용자 등 정부기관을 제외한 모든 기관이 될 수 있다.

민간자율 규제의 틀은 크게 기술적, 제도적 접근과 인터넷 윤리(정보통신윤리), 협력관계, 참여자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기술적 접근은 인터넷 내용 등급제도와 필터링, 금칙어 등을 들 수 있다. 인터넷 내용 등급제도는 인터넷상에서 유통되는 정보에 적용할 수 있는 등급(0~4등급)을 범주화하고 이를 정보제공자들이 제공하는 정보에 등급을 설정하면 내용을 선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정보를 선별하여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기술적 접근은 인터넷 내용 등급제도와 필터링, 금칙어 등을 들 수 있다. 인터넷 내용 등급제도는 인터넷상에서 유통되는 정보에 적용할 수 있는 등급(0~4등급)을 범주화하고 이를 정보제공자들이 제공하는 정보에 등급을 설정하면 내용을 선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정보를 선별하여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필터링은 내용선별 소프트웨어와 같이 범주화된 영역을 통해 차단할 수 있는 것으로 선별 차단뿐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차단할 수 있는 불건전정보 차단 프로그램이 활용되기도 한다. 사업자들이 스스로 정한

2) 이경화, "인터넷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의 효과", 정보사회학회지 제5호, 30p, 2003.

3) 2005년 1월부터 11월까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심의한 불법, 유해정보의 수는 11만여 건에 이르렀고 있으며, 이 같은 수치는 지난 2004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4) 김만섭, "인터넷 유해정보 민간자율 규제에 관한 연구", 18p, 2003,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표 1〉 민간자율 규제 접근의 틀⁵⁾

접근 유형	접근 틀
기술적	등급제, 필터링, 금칙어 등
제도적	핫라인, 신고센터 운영 신고센터
윤리적	정보통신윤리, 네티켓 등
협력관계	정부, 민간, 기업, 시민단체
참여자	규제 주체자, 이해 당사자, 정보이용자

금칙어를 이용하여 불법 정보나 유해정보에 접근을 차단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제도적 접근은 인터넷 핫라인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인터넷 정보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경우, 유해하거나 불법 정보를 신고할 수 있는 장치다. 핫라인에 접수된 정보는 핫라인 운영기관에서 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처리된다. 핫라인은 통상적으로 사법기구와 연결되어 있어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

인터넷 윤리는 명확하게 불법은 아니지만 인터넷 환경이나 이용자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보를 유통시키거나 그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경우를 윤리적 문제로 본다. 따라서 정보제공 사업자뿐 아니라 정보 이용자들에게도 윤리의식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또한 정보 이용자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도덕적 품성, 즉 네티켓은 인터넷 윤리의 기본으로 볼 수 있다.

협력관계의 측면에서 보면 인터넷 환경 조성에는 어느 한 기관이나 단체가 참여해서는 해결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 정부, 민간, 사업자, 이용자 등이 모두 협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핫라인이 제도적 접근이기도 하지만 협력적 접근과도 관련성이 많다.

또한 규제의 참여자는 사업자, 이용자, 감시자 등 모두가 규제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용자의 경우는 다른 이용자와 이메일이나 게시판, 메신저 등을 통해 상호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적 규제와 민간 자율 규제가 적절하게 조화

가 되지 않으면 건강한 인터넷 환경 조성은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 최근 법제도에 의한 공적 규제나 기술적인 규제보다는 인터넷 윤리나 이용자의 행동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⁶⁾. 법적 규제는 인터넷 환경이 급변하는 데에 따라 가기 쉽지 않으며, 제도 역시 정착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보 이용자들의 의식 전환, 태도의 변화를 통해 바로 실천 가능한 자율 규제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완전한 정보 이용자에 의한 자율 규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정부나 민간단체, 사업자 등의 차원에서 정보이용자들의 자율 규제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제도의 마련, 의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이 등장하고 있다.

3. 각급 기관의 인터넷 정화 활동 현황

3.1 정부 및 공공기관의 인터넷 정화 활동

정부와 공공기관의 활동은 엄밀한 의미에서 민간자율 규제와는 거리가 있다. 그러나 최근 민간 자율 규제를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이 인터넷 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는 크게 두 가지 축에서 자율규제 활동을 지원해 왔다. 그 하나는 이용자 및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법률과 제도를 마련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직접 정보 이용자들을 향해 인터넷 윤리 정화 활동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실천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캠페인 활동과 교육의 실시라고 할 수 있다.

법제도 마련의 가장 큰 성과는 청소년보호책임자제도의 시행이다. 일정 수준의 사업자는 반드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자를 두어야 하고, 이에 걸맞는 각종 사업을 전개해야 하는 것

5) 김만섭의 연구, '인터넷 유해정보 민간자율 규제에 관한 연구'를 필자가 재구성하였다.

6) 김만섭, 앞의 책, 169p

이다. 청소년보호책임자제도로 인해 사업자들의 자율 규제가 강화되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사이버 폭력이 사회 이슈가 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법령을 정비하고자 했다. 그러나 법제도를 수정하는 일은 또 다른 문제를 수반하고, 수정하는데도 적잖은 시간이 소요되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의 이용 태도와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인식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2005년 6월부터 정보통신부가 주축이 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등 공공기관과 시민단체, 업계, 학계 등 33개 추진 단체가 하나가 되어 전개한 '사이버명예시민운동'이 그것이다.

사이버명예시민운동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일이고, 그 첫 번째 실천 사항은 네티켓을 실천하는 것이다. 네티켓 실천을 바탕으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보자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사이버명예시민운동 홈페이지를 통해 사이버 명예 시민 가입을 권유하고, 가입하면 '사이버명예시민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동참을 유도하였다. 사이버명예시민운동을 알리기 위해 텔런트인 김아중, 홍경민 씨를 홍보대사로 선정하고, 이들이 출연한 포스터와 방송 광고물을 제작하여 일반 네티즌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네티즌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가두 캠페인을 전개하였으며, 네티즌 스스로 건강한 인터넷 문화 만들기에 동참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공모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현재 사이버 명예시민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네티즌 개인은 1만여명에 이른다.

한편 네티즌들의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인터넷윤리 교육을 실시하였다. 전국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네티켓 등 인터넷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한 각종 방법이나 사례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중학교 2개교를 사이버 청정학교로 지정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올바르게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법, 인터넷 윤리 실천법 등을 교육하였고, 각종 엽서 및 글짓기 공모전, 정보통신윤리퀴즈대회를 전개하였다.

또한 이용자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소중한 양심을 회복하자'는 취지에서 양심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일반인들의 인터넷 윤리 의식 제고를 위한 TV광고, 지하철 광고 등을 통해 관심을 집중시켰다.

3.2 민간단체의 인터넷 정화 활동

민간단체는 인터넷 관련 법제도의 개선, 기술적 접근, 유해정보 감시, 인터넷 윤리 교육, 각종 캠페인 전개에 이르기까지 활동의 영역이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민간단체의 목표와 상황에 따라 자율정화 활동에 참여하는 정도는 매우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인터넷 정화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는 기존의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던 전통적인 단체와, 인터넷 문제를 다루기 위해 새롭게 등장한 단체로 구분될 수 있다. 즉 청소년, 여성, 환경, 인권 등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 오다 인터넷 문제까지 영역을 확대한 전통적인 단체로, 이들 단체에서 인터넷이 차지하는 비율은 크지 않은 편이다. YMCA, YWCA, 대한어머니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미디어열린세상사람들,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등이다.

반면 설립 목적이 처음부터 인터넷 상의 역기능 문제를 해소하고 건강한 사이버 문화를 조성하겠다는 목표로 만들어진 단체는 많지 않으며, 학부모정보감시단, 음란물우리손으로없애자연합(네스튼), 한국IT소년단 등이다. 이들은 민간단체는 주로 인터넷 상의 유해정보 모니터링, 정

보 이용 교육을 포함한 정보통신 윤리 교육 등을 위주로 활동해 오고 있다.

인터넷상의 역기능 문제에 대해 활동하고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는 학부모정보감시단을 들 수 있다. 이 단체는 2005년 온라인 게임과 모바일상의 성인 콘텐츠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전개하였다. 이에 따라 청소년에게 적합하지 않은 게임에 대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 고시할 것을 요구하였고, 게임 아이템 거래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도 경고하였다. 특히 모바일 상의 성인 콘텐츠에 청소년들의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모바일 정책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SK 텔레콤 등 이동통신사들에게 청소년 보호장치를 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여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이 단체는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학부모대상 전국 순회 인터넷 윤리 교육을 진행하여 왔으며, 2005년에도 전국의 학부모 대상으로 상반기에는 인터넷 중독과 청소년 문화와 관련된 주제로, 하반기에는 청소년 사이버 범죄 현황과 대책 교육을 실시하였다. 인터넷 윤리 교육을 위해 대구와 대전에서 강사 양성교육을 실시하여 향후 인터넷 윤리 교육 활동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다.

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네스툰은 원하지 않아도 음란물에 쉽게 노출되는 인터넷 환경을 청소년 스스로 정화해 보겠다는 의지로 만들어졌다. 이 단체는 유해정보 차단 프로그램인 '모야'를 개발하여 학부모정보감시단과 연계하여 보급해 오고 있다. 2005년에는 주로 유해정보 모니터링의 활동을 전개해 왔다.

한국IT소년단은 주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소년단을 모집하여 교육이나 캠프 등의 활동을 통해 청소년 스스로 올바른 인터넷 이용 문화 조성에 필요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밖에 시민단체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연계하여 서울YWCA, 춘천YWCA, 부산YWCA,

제주YWCA, 대한어머니회 중앙회와 대구, 대전, 전주, 광주 지역 대한어머니회와 공동으로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주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스팸메일을 차단하는 스팸체커, 사이버 명예시민 운동 참여 홍보물 등을 나누어 주는 가두 캠페인과 지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포스터 공모전, 댄스 경연대회, 교육 등을 통해 지역민을 대상으로 건강한 사이버 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특히 시민단체 중에서 유해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단체는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서울협의회이다. 이 단체는 대학생 자원봉사단으로 구성된 사이버 패트롤을 구성하여 불법정보나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정보를 신고함으로써 깨끗한 인터넷 환경 조성에 한 몫하고 있다.

한편, 교사 단체인 깨끗한미디어를위한교사운동은 인터넷 역기능 대처와 올바른 이용에 대해 교재 개발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정보처리학회는 인터넷윤리를 정착시키기 위해 인터넷윤리진흥본부를 발족시키기도 했다.

회원수가 200만명에 달하는 다음 카페 '카리모'는 스팸메일 사용자나 유해한 카페 정보를 찾아 이를 처리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명예훼손 및 개인 정보 침해와 관련되는 이슈가 발생했을 때는 바로 공지하거나 약관 등을 회원들에게 전달하여 회원들이 문제성 글을 게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인터넷 상에서 화제가 되었던 '드라군 놀이'를 추방하자는 서명을 벌이기도 했다⁷⁾.

3.3 사업자의 인터넷 정화 활동⁸⁾

인터넷 발전으로 인해 나타나는 각종 부작용은 사업자들의 자율 규제 활동의 필요성이 대두되었

7) 전자신문, 2005.10.12

8)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사업자의 자율규제 현황, 2005의 내용을 필자가 보완하여 작성하였다.

다. 기존 공중파 방송매체처럼 공적 규제만으로 정보 진전화를 위한 규제의 실효성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⁹⁾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특히 2005년 연예인 X파일, 개똥녀 사건에 이르는 사이버 명예훼손이 사회 이슈화 되면서 사업자의 자율 규제 문제는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이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거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도 상당수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유해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여 자율 규제를 촉진하고 있다.

사업자들이 추진하고 있는 자율 규제는 2005년에 특징적으로 시행되었다기보다는 그동안 꾸준히 시행되어온 것들이다. 사업자들의 자율 규제 활동을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각종 공지를 통해 제도하는 경우로, 이슈가 발생하거나 유해정보 유통의 문제, 댓글 게재 시 주의 사항, 저작권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다.

두 번째는 고객센터 및 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한 권리침해신고센터의 운영을 들 수 있다.

고객센터를 통해 상시적으로 유해정보 유통 등에 대한 접수를 받고 있으며, 유해정보를 유통시킨 아이디어 대해서는 경고를 하게 되고 경고 횟수에 따라 일주일 아이디 정지, 해지 등의 규제가 이루어진다.

사이버 폭력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고객센터와는 별도로 포털 사이트마다 권리침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가 사이버 폭력 피해 내용을 신고하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들이 취해진다. 특히 다음 사이트는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 일정시간 동안 다른 이용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사이버 가처분제도를 2003년부터 운영하여 사이버 폭력 등의 피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율 모니터링 및 캠페인 활동을 들 수 있다.

대부분의 포털 사이트들이 금치어를 설정하여 정보 이용자들이 불법이나 유해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카페나 채팅방, 블로그 등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문제가 있는 정보에 조치를 취하고 있다.

네이버의 경우 지식인, 카페, 블로그, 뉴스 댓글, 토론장, 게시판 서비스 등에서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오남용 예방 전담기구'를 구성하여 9월부터 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모니터링하여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주니어네이버에는 '인터넷윤리시간' 코너를 마련하여 네티켓을 알아보고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네이트 닷컴에서도 2005년 네티즌들의 댓글을 '추천 또는 반대' 단추를 클릭하면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댓글 5개가 우선적으로 게재되는 반면, 네티즌이 반대하는 나쁜 댓글은 화면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인터넷 사용을 돕기 위해 필수 에티켓 등을 작성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유해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실명제를 도입하고 있다¹⁰⁾.

야후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으로 모니터링 전담 인원을 배치하여 유해정보를 점검하고 있으며, 2005년도에는 서비스 기획 전에 각 영역에 대한 청소년보호담당자와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 평가를 하고 있으며, 서비스 부작용에 대한 책임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연령별 서비스 등급제를 실시하여 성인정보에 청소년들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야후꾸러기에서 유해정보를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

9)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정보통신윤리백서, 2004, 177p

10)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청소년보호책임자협력회의 자료집 -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 운영 사례(NHN)

시하고 있으며, 유해정보가 발견되면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¹¹⁾.

이밖에 사업자단체를 중심으로 자율 규제 활동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가 전화정보 및 모바일 정보에 대해 자체적으로 심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국게임산업연합회는 청소년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 중이다.

3.4 언론사 중심의 인터넷 정화 활동

2000년 인터넷 보급이 보편화되고 역기능이 등장하면서 주요 언론사의 관심도 인터넷 문화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주요 신문마다 사이버 건전화 캠페인, 건전화 정보 이용 만들기 캠페인 등이 전개되었는데 2005년에도 이 같은 현상은 이어졌다. 언론매체를 통한 인터넷 정화 활동은 올바른 정보이용 문화가 정착되는데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터넷 역기능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고, 인터넷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국민들의 인터넷 윤리 의식 마인드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에는 의식 전환뿐 아니라 정보 이용자들이 직접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이벤트를 마련하여 자율 정화 활동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올해는 많은 언론사들이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매일경제의 'M클린', 머니투데이의 'U클린', 전자신문의 'e-Clean' 캠페인 등은 이용자뿐 아니라 사업자, 단체 등 많은 사람들이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는 알찬 내용들로 채워졌다.

신문이라는 특성상 주로 캠페인의 내용은 인터넷 역기능 폐해를 알리는 것으로 시작하여 궁정적으로 이용을 유도하는 내용이 주였다.

전자신문의 'e-Clean' 캠페인은 주로 지면을 통해 역기능 사례들 즉, 스팸, 사이버범죄, 음란물 유포, 피싱, 개인정보 유출, 게임 중독 등의 악영향에 대해 기사화하였고, 정부, 청소년단체, 교사 단체, 학부모 단체 등 각 단체별로 정화 활동

을 소개하였다.

전자신문이 기사화하여 네티즌들의 참여를 유도했다면 머니투데이의 'U클린' 캠페인은 역기능이나 정화활동 등에 대해 기사를 통해 건강한 사이버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였다. 이와 함께 오프라인에서 이벤트를 개최함으로써 보다 네티즌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특히 자율정화 활동의 대상을 청소년에게 초점을 맞추어 행사를 진행하여 많은 호응을 받았다.

지난 6월 2000여 명의 네티즌이 참여한 가운데 윤도현, 성시경 등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있는 가수들이 출연한 '따뜻한 디지털 세상' 콘서트를 개최하였다. 이 공연을 통해 네티즌에게 네티켓의 중요성을 알리고, 실천할 것을 호소하였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명예시민운동과 연계하여 사이버명예시민운동송을 부르며, 함께 운동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였다. 하반기에는 전국의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건강한 인터넷 세상을 위한 포스터, 글짓기 공모전을 실시하여 약 2000여 편의 작품을 접수하였다. 대부분 건강한 인터넷 세상을 만들기 위한 청소년들의 다짐, 네티켓 실천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였다. 이 행사는 전국의 학생들로 하여금 네티켓 실천과 건강한 사이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던 행사였다.

매일경제의 'M클린' 캠페인은 인터넷 상의 문제를 모바일로 확대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가입자 3600만명 등 최고 수준의 모바일 환경을 갖추고 있으나 휴대폰의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심각하다는 인식하에 건강한 휴대폰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2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1년간 지속해온 캠페인이다. 휴대폰의 무분별한 사용, 휴대폰을 통해 유통되는 콘텐츠의 문제점 등을 연중 기획으로 기사화하였으며, 휴대폰 에티켓을

11)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청소년보호책임자협력회의 자료집-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 운영 사례(야후)18P.

지키기 위한 스티커를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또한 휴대폰 폐해 사례 및 에티켓을 실천하기 위해 모범학교를 선정하여 인터넷 윤리 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언론사의 이 같은 캠페인 활동은 인터넷 상의 문제에 대해 정보 이용자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인터넷 문화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시켜주었으며, 나아가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부터 네티켓 등을 실천하는 일의 중요성을 알리고,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언론사는 2005년 활동을 기점으로 2006년에도 지속적으로 인터넷 자율정화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4. 인터넷 윤리 정화 활동의 성과와 향후 방향

4.1 성과 및 문제점

2005년 인터넷 상에서 발생한 문제는 어느 특정인만이 피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었다. 따라서 그 어느 해보다도 정부나 민간단체, 사업자, 언론사, 이용자에 이르기까지 인터넷 윤리를 바탕으로 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2005년의 정화 활동의 방향이 크게 두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정보 이용자를 비롯하여 국민들의 의식 제고를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의식의 제고를 넘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시키고자 했다는 것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시민운동이나 언론사가 전개한 U-Clean, M-Clean, e-Clean 캠페인, 민간단체에서 전개한 각종 캠페인은 인터넷 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에 충분하였고, 정보 이용자들의 인터넷 윤리 마인드 제고에 기여

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소년과 학부모 대상으로 전개한 인터넷 윤리 교육과 각종 공모전은 평소 자신의 인터넷 태도에 대해 점검하고, 인터넷 윤리를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여기에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마련한 각종 인터넷 역기능 해소 장치와 계도활동은 정보 이용자들이 인터넷 윤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그 결과 연초 다양하게 발생했던 사이버 폭력이 감소하였으며, 카페 등을 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예절을 지키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기도 했다.

그러나 2005년 다양한 정화활동이 전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이용자의 32%는 인터넷 공간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고 있으며¹²⁾, 자신이 행한 행동이 범죄임을 모르는 경우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는 정부 및 공공기관, 시민단체, 사업자, 언론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하기는 했으나 실제 이용자들에게 자율정화 활동이 미치지 못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업자의 자율 규제 활동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정화 활동이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시간과 장소의 제약으로 인해 한정적인 사람들에게만 전달될 수밖에 없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사이버명예시민운동도 '사이버명예시민되기'를 제외한 활동들은 온라인 상에서 캠페인 활동에 동참할 수 있는 제약이 있었고,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캠페인이나 교육도 대상이 한정적이기는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많은 단체나 기관이 정화활동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이용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사업자 자율 규제의 경우도 제한된 장치를 만들거나 불법이나 유해정보 유통에 대해 상시적

12)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인터넷정보이용실태조사' 2005

으로 안내하는 수준에 머물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것과는 달리 사회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4.2 향후 방향

2005년의 정화활동으로 인터넷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우려가 생각하지도 못한 어떤 문제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를 일이고, IT강국의 이미지에 비해 인터넷 윤리 수준은 아직도 편차가 커 인터넷 윤리 정화 활동은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다양한 인터넷 정화 활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힘든 것은 정보 이용자를 직접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내용이 전달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정화활동의 주체가 되어야 할 정보 이용자들에게 자기 규제 의 당위성을 확보시켜 주지 못했다는 점이다. 정보를 규제하려는 주체자들, 정부나 민간단체, 사업자 등이 그동안 인터넷 구조와 자율규제 제도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거나 규제에 참여하는 정보 이용자들의 행위에 대하여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적절한 대안이 모색되지 못했다(김만섭, 2003).

그러나 개동녀 사건에서 마녀 사냥식 비판을 겪은 정보 이용자들은 특히 정보 이용자 개인의 성향과 태도가 중요함을 입증하였고, 서서히 자신들의 태도를 수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윤리 정화활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이용자들에 의해 인터넷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모두에게 유익한 공간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화 활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정화 활동의 목표도 '건강한 인터넷' 등 거시적인 목표보다는 실제적으로 실천이 가능한 내용을 주제로 설정하여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보 이용자들이 항상 활동하고 있는 온

라인 공간으로 정화활동이 옮겨져야 한다는 점이다. 인터넷 공간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온라인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의식 제고나 윤리를 실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화활동이 추진되어야 한다.

오프라인에서의 정화활동을 위해서는 인터넷 윤리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학교를 방문하여 인터넷 윤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1회성 행사에 머무는 현재의 교육 시스템으로는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따라서 인터넷 윤리 실천의 토대가 되는 인터넷 윤리 교육을 체계화하고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성동규, 사이버커뮤니케이션, 세계사, 2002.
- [2] 정현선, "디지털 리터러시의 국어교육적 고찰", 국어교육학회 제28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4.
- [3] 김만섭, "인터넷 유해정보 민간 자율규제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대학원 박사논문, 2003.
- [4] 이경화, "인터넷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의 효과" 정보사회학회지, 25호
- [5] 박성호, "인터넷 미디어의 사회 문화적 충격과 정책 방향", 정보화정책 제10권 제1회, 2003 봄
- [6]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정보통신윤리백서, 2004.
- [7]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청소년보호책임자협력회의 자료집, 2005
- [8] 정보통신윤리위원회, 5차 사이버양심포럼 자료집, 2005
인터넷정보이용실태조사, 2005
사이버 폭력 관련 사업자 자율규제 현황, 2005
- [9] Marshall MaLuhan & Q. Fore, The Medium Is Massage, Random House, 1976, 김진홍 옮김, 『미디어는 맛사지다』, 열화당, 1995

- [10] 전자신문 www.etnews.co.kr
- [11] 매일 경제 www.mk.co.kr
- [12] 머니투데이 www.moneytoday.co.kr
- [13] 학부모정보감시단 www.cyberparents.or.kr
- [14] 네이버 www.naver.com
- [15] 네스툼 www.netstune.net
- [16] 한국IT소년단 www.itoday.or.kr
- [17]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서울협의회
www.safeschool.or.kr
- [18] 야후 꾸러기 kr.kids.yahoo.com

저자약력



이 은 경

1988년 중앙대학교 문예창작학과
2004년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언론학 석사
1988년 7월 - 1994년 6월 (주)정보시대 취재 기자
1994년 7월 - 1996년 12월 삶과꿈 편집부장
1997년 2월 - 2003년 9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팀장
2003년 10월 - 2005년 8월 불법청소년유해정보신고센터장
2005년 9월 - 현재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예방사업단장